

# 해남군 '스마트농업' 대전환... 미래농업 클러스터 박차

**'생산·유통·교육·창업' 원스톱 지원**  
**2027년까지 국비 등 200억원 투입**  
**삼산면에 18.6ha 스마트단지 조성**  
**노지 중심에서 디지털 농업 탈바꿈**

해남군이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 교육,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남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삼산면 일원 농업연구단지(18.6ha)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청년농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비롯해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채소류 종자생산단지, 기업 연계형 과수단지 등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시설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세웠다.

우선 올해 총사업비 103억원 중 국·도비 52억 원을 확보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에 착수

한다. 이어 오는 2027년부터는 총 200억원(국·도비 130억원)을 들여 4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현장 실습장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창농을 돕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육성지구는 단지 내 기후변화대응센터 및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와 연계해 아열대 작물 등 고부가가치 품목 다변화를 이끌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저장·물류 체계를 구축해 유통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나아가 군은 농업연구 1·2·3단지 전체(약 55ha)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간소화와 공유재산 특례 등 제도적 혜택이 더해져 민간 투자와 관련 기업 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해남군은 올 하반기 착공하는 국립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연관 시설을 집적화해 총 82ha 규모의 국내 최대 군 단위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단지는 고구마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기반 시설 등

이미 완공돼 활발히 가동 중이다.

군은 대규모 연구단지가 완성되면 노지 중심의 기존 농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디지털 농업으로 탈바꿈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을 통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스마트 농업은 청년이 돌아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전략"이라며 "생산부터 유통, 창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해남만의 미래 농업 모델을 완성해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역사·액션 결합 대 흥행

**마상무예·입성식 퍼레이드 등 호응**  
**청년 '플리마켓' 상권 활성화 기여도**

조선시대 전라도 육군 총지휘부였던 전라병영성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형 콘텐츠로 재해석한 '제29회 전라병영성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사흘간 병영면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수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남도 대표 역사문화 축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역사가 살아있는, 전라병영 액션파크'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는 단순 관람을 벗어나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대규모 병마절조사 입성식 퍼레이드를 비롯해 활쏘기, 페인트탄 서바이벌, 마상무예 등 생동감 넘치는 액션 콘텐츠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새롭게 복원된 연회당에서의 차 시음을 비롯해 최신 군 장비 전시, 밀리터리 타투 체험 등은 국방 축제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뽐냈다.

부산에서 지인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온 A(60대)씨는 "연회당에서의 차 무료 시음은 그야말로 강진의 정체성을 알기에 충분했다"면서 "차를 내오는 다인의 모습도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제29회 전라병영성축제'에서 선보인 대규모 병마절조사 입성식 퍼레이드 모습.

<강진군 제공>

아울러 지역 청년들이 주도한 플리마켓 '노을장'과 병영 주막 등은 하멜촌 맥주 등 특산물 소비로 이어지며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역사와 체험이 결합된 전

라병영성축제의 무한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전국구 명품 역사문화축제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완도군, '21세기 장보고' 한상 어워드 공모

**내달 29일까지 후보자 접수**

완도군은 21일 "장보고글로벌재단과 공동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제11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상은 글로벌 경영 및 리더십을 실천한 훌륭한 재외 경제인을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23개국 55명의 수상

자를 배출했다. 올해 시상 대상(현정자) 1명과 최우수상(국회의장상) 1명,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상과 최우수상은 여러 국가에 기업이나 지사를 세워 글로벌 경영을 실천하고 거주국 한인 사회 발전과 정체성 함양에 기여한 기업인이 대

상이다. 장관상인 우수상은 각 부처 성격에 맞춰 한류 확산(문체부), K-푸드 유통 및 해외 농업 개발(농식품부), IT·벤처 등 경제 영토 확장(산업부), 물류·수산(해수부)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이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후보자 추천은 장보고글로벌재단 등 공식 누리집에서 추천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군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 영광군, 청소년 '또래상담자연합회' 새 출발

**폭력 예방 등 또래 문화 주도**

영광군은 "최근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또래상담자연합회 '늘해랑 9기' 입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또래상담자연합회는 청소년 주도의 건강한 또래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단체로, 올해 연합회는 선발 과정을 거친 신규 회원 14명과 기존 회원 1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1명이 참석해 또래상담자로서의 긍지와 소속감을 다지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입회식은 임원진 소개를 시작으로 또래상담

자 서서식, 위촉장 수여, 향후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마련된 팀빌딩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를 알아가고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로 다른 학교와 기수의 청소년들이 또래상담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앞으로 함께 이어갈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늘해랑 9기를 주축으로 청소년이 직접 이끄는 건강하고 안전한 또래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신안군, 여름철 감염병 대비 만전 14개 읍·면 방역소독기 점검·수리

신안군은 "최근 방역 장비 전문업체와 보건소 관계자가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방역소독기 일제 점검과 수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철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차량용 소독기 14대와 휴대용 소독기 27대 등 총 41대의 장비 상태를 살피고, 배터리 성능 저하 및 노즐 막힘 등 주요 고장 부품을 현장에서 즉시 수리·교체했다.

또한 각 읍·면 방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수칙, 고장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 실무 교육을 병행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김현희 군 보건소장은 "본격적인 하절기 방역소독을 앞두고 선제적인 장비 점검을 통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며 "지속적이고 촘촘한 방역 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 함평군, '농지업무 홍보협의회' 출범

**郡·한국농어촌공사·농관원 참여**

함평군이 농업인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기관 별로 흩어진 농지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평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함께 '농지업무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번 협의체는 농지 임대수탁,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공익지불금 신청 등 농업인 필수 제도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꾸려

졌다. 각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행정 정보와 홍보 기능을 하나로 연계해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이들 3개 기관은 첫 성과로 핵심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물 '한눈에 보는 함평 농지업무 길라잡이'를 공동 제작해 읍·면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군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복잡한 농지 관련 절차를 농업인들이 간편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함평=기영규 기자



## 진도군, 道 세외수입 징수 평가 '우수상'

진도군은 21일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6개 지표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평가는 전남도 및 시·군 세외수입 징수율, 과태료 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군은 그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삼습 체납 차량 번

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세외수입 전담 팀을 주축으로 여러 부서에 흩어진 체납액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한 행정 협업 시스템이 이번 호평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공정과 원칙 다시 묻다"...목포 공직사회의 자성

≪취재수첩≫



정 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목포시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목포시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하나가 그동안 지역 행정의 이면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새로운 시장'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인사, 계약, 채용, 외부 위촉 등 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문제의식이 담겼다.

단순한 건의를 넘어 반복돼 온 관행과 구조적 병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무엇보다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두드러진다. 글은 "청렴 결백한 인사"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실력과 경력, 연공을 존중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 줄서기나 눈치보기 등 비정상적 관행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그간 조직 내부에서도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계약 행정에 대한 불신 역시 적지 않다. 수의 계약 과정에서 성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영향력이나 이른바

'뺨'을 맞은 업체, 부실 시공을 일삼는 업체에 대한 정리를 촉구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성실성과 업무 태도를 기준으로 한 선별을 강조하면서 외부 청탁으로 채용된 뒤 기본적인 근무 자세조차 갖추지 않는 사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역시 단순한 인력 운용을 넘어 조직 기강 전반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장과 각종 위원회, 관련 단체에 대한 검증 강화 요구도 이어졌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은 다소 직설적이지만, 그만큼 현행 시스템에 대한 내부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다.

댓글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도 의미심장하다. 한 직원은 "신임 시장이 현명한 판단은 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삼가야 한다"며 "일선까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현장의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 공로를 앞세운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단순한 내부 건의를 넘어선다. 조직 스스로 '공정'과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는 신호다.

새로운 시장 체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 목소리가 실제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